

“흑산공항 개항 전 관광헬기·쾌속선 시범운영을”

“中 선호 호텔·섬 연계 교통망 구축 필요”

전남도, 2020년 개항 대응 용역보고회

오는 2020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흑산공항 인근에 중국인 선호 호텔 건립, 항공해양관광단지 조성, 인근 섬과의 연계 항로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각에서는 흑산공항 개항 이전에 관광헬기, 쾌속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섬 간 연계 교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섬 주민 생활 중심의 해상교통망’으로는 획기적인 섬 관광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오는 2020년 흑산공항 개항을 앞두고 이와 연계한 관광 개발, 각종 규제 완화 등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2일 도청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이 진행중인 흑산공항 개항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용역 과제는 흑산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대책, 인근 섬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연계항로 개설, 각종 규제완화 방안 등이다.

2020년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수도권, 중국 등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흑산공항을 통한 연간 방문객이 76만6000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은 공항 인근 지역에 중국인 선호 호텔 체인 유치, 민박 활성화 방안 등 관광객 증가에 따라 과부족이 예상되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확충 대책을 제시했다. 또 흑산도의 매력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항공해양관광단지 조성, 섬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 정비, 인근 섬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도 국내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흑산도와 인근 섬 지역 연계 교통망 활성화를 위해 해상 및 항공 연계 항로 개설과 섬 지역 응급의료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또 흑산도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현지 주민들을 배려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흑산공항 개항 이전에 관광헬기, 투어 쾌속선 등의 새로운 수단을 통해 섬 간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선(支線)을 시범운영하면서 간선(幹線) 역할을 하게 될 항공노선 개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분야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신안군과 협력해 흑산공항 개항에 맞춰 관광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흑산공항은 흑산면 예리 일원 68만3000㎡ 부지에 국비 1833억원을 들여 1200m의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갖추게 되며, 9월 중 공사 입찰 공고를 거쳐 오는 2020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419년 전 이순신처럼 ... 명량대첩 재현

상전투가 재현되고 있다.

2016 명량대첩축제가 3일 오후 전남 해남 우수읍 울돌목(해남-진도사이 해역) 해상에서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이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419년 전 명량대첩 당시 조선 수군 판옥선 13척이 일본 수군의 안택선 133척을 격파한 명량대첩 해

〈전남도제공〉

광주시의회, 전일빌딩 활용계획안 원안 가결

市 정책자문관 사무실 유지키로

시금고 의견 엇갈려 오늘 재심의

그동안 시정 개입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던 광주시 정책자문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이 일부 수정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일 상임위를 열고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거나 조정해 의결했다.

의원 간 쟁점이 됐던 사무공간은 그대로

제공하고 일부 상임 자문관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자문관 수는 10명 이내에서 10명 내외로 하고 시의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하지 않도록 새 조항을 삽입했다.

시 정책자문관제는 시 훈령으로 운영해 왔으나 운영과정에서 일부 자문관의 시정 개입 의혹 잡음이 일자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운영 등을 놓고 시 의원 간 이견으로 또 다른 갈등을 빚기도 했다.

시 금고 선정 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

려 5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영업점 분포도와 중소기업 대출실적 배정,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배정,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배정 등이 쟁점이 됐다. 2시간 이상 격론을 벌여 조례 수정안에 상당수 접근했으나 막판 일부 의원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의원 발의로 진행된 시 금고 개정 조례안은 영업점 분포 평가 기준을 관내에서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 배점을 낮추는 등 지방은행의 반발을 샀다. 이후 광주시가 영업점 분포 평가방식

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자 일부 시의원이 다시 반발하는 등 선정 전부터 논란이 적지 않다. 4년간 시금고를 운영할 은행 선정을 앞두고 배정 등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금융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재심의 과정에서도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위는 이와함께 전일빌딩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는 도시공사 소유의 빌딩 건물 중 3층, 8층, 9층(연면적 4748㎡)을 매입해 복합문화센터와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뉴스&정보 브리핑

광주시 도시재생 신규 공모 7개 사업 선정

광주시는 2017년 도시재생 신규 공모에 7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98억원을 지원받는다

주요 사업은 KTX가 진입하지 않아 쇠퇴한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군공항으로 개발되지 못하는 용보촌 주변 도시재생, 주월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주민과 주변 주민과의 공동체 회복 사업 등이다.

서구 농성동, 광산구 도산동 등 ‘광

주형 공동체 주택건설 사업’ 확대 예정지 2곳도 규모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총사업비 203억원 중 광주시가 50억원, 자치구가 13억원, 국가·LH가 140억을 부담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드 갈등 재현 방지 군사시설 주변 지원법 만든다

국방부가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예정 후보지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데서 보듯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군사시

설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군 시설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렇다 할 지원제도가 없다 보니 군 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만원 인상 월 12만원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되고 부모교육 활성화 예산이 새로 편성된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7023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인 2016년의 6461억 원보다 8.7% 증가한 것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

6%(353억 원), 기금이 6.6%(208억 원) 늘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교육비 등 지원 예산이 올해 724억 원에서 내년엔 925억 원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현실화를 위해 지원 단가가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성장동력 ‘에너지밸리포럼’ 오늘 창립

대표 이재훈 산업기술대 총장

자동차, 문화와 함께 광주 3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민간 포럼이 구성된다.

에너지밸리포럼은 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와 창립대회를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이 후원하는 포럼의 초대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이재훈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이 맡기로 했다.

창립대회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장병완 의원,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이 축사와 격려사로 에너지 신산업 조력자로 광주·전남 상생에 기여하는 포럼

이 되기를 당부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한전과 협력사 등 에너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지원 기관,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에너지 신산업 정보교류와 지식 네트워크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에너지밸리를 대표하는 전문 비즈니스 포럼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포럼은 매월 한차례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정부 정책 방향, 해외 시장동향, 신기술 전망 등을 공유하는 정기 포럼을 열고 기업, 예비창업자 등 회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훈 대표는 “광주·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성장하도록 정보교류, 정책당국과 소통, 에너지 신산업 발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진로·직업체험 박람회
2017학년도 전문대학 수시입시 박람회에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
PROCOLLEGE EXPO 2016

호남권 일시 | 2016. 09. 09(금) - 09. 10(토)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전시내용 직업체험관 | 2017학년도 수시 입시 박람회(호남지역) | 진로·진학상담관
프로그램 개막식 | 2016 대한민국 실용음악 페스티벌(광주 본선) | 특별공연(울랄라세션) | 진로특강

참가접수 : 공식홈페이지 <http://expo.procollege.kr>

※ 전시내용 및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